대림 제 1주일(2017년 12월 3일) 강론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인생을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산타 할아버지를 믿는 단계,

 두 번째 단계, 산타 할아버지를 믿지 않는 단계,

 세 번째 단계, 산타 할아버지 흉내를 내는 단계,

 마지막 네 번째 단계, 산타 할아버지와 그 모습이 닮아가는 단계...

드디어 올해도 어김없이 대림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례는 오늘로 2018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 2017년 달력도 이제 마지막 한 장 딸랑 남아 있습니다. 늘 느끼지만 세월 정말 빠릅니다. 세월이 빠르다 못해 그냥 날아갑니다. ‘훅’하고 지나가 버립니다. 아쉽게도 이 빠른 세월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속절없이 흘려보냅니다.

해마다 오는 대림절, 해마다 맞이하는 성탄, 연말, 올해는 뭔가 좀 다르게 보낼 생각 없으신가요? 늘 올해는 좀 다르게 보내자고 하지만, 사실 별다를 것도 없습니다.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다른 것보다도, 올 대림절은 그냥 조금 더 기도하고, 그리고 조금 더 기쁘고 행복한,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조금 더 많이 찾는 시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연말, 성탄, 그리고 새해, 여기저기 바쁘고 분주하고, 시끄럽고, 그리고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기 일쑤입니다.

사실, 대림절은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고요한 시기입니다. ‘대림’이 갖는 본래 의미가 ‘고요’와 ‘기다림,’ 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어두운 밤에 새벽이 오길 깨어 기다린다는 의미이죠. 구약 시대,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둠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세주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 왔습니다.

새벽이 오기전, 참 고요하고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깨어서 조용히 기도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뭘 어떻게 기도하냐구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어도 좋고, 묵주기도를 해도 좋습니다. 그 기도는 아침이 밝을 때 기쁨과 행복으로 하루를 선사할 것입니다. 기도는 기쁨과 행복이 함께 와야 참된 기도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뒷받침될 때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기도만 죽어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옆집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위해서 묵주를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 이웃 사람이 지금 배고파 굶어 죽어 가고 있는 데 좀 도와주세요.’ 응답이 어떻게 오는 줄 아십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묵주 들고 기도하는 사람의 뺨을 힘껏 때립니다. “야, 이놈아! 너 집에 쌀 남은 거 있잖아! 얼른 밥해 가지고 먹여!!”

또, 이웃에 사는 사람이 병원에 갈 돈이 없어 죽어갑니다. 묵주를 들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저 불쌍한 사람,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도 천사가 나타나서 뺨을 힘껏 때립니다. “빨리 저 사람 들쳐 업고 응급실로 가. 나는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왜 꼼짝 안하고 기도만 하는 거냐?”

기도는 반드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말로만 하는 기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올 대림 기간에는 행동으로 실천하는 진솔한 기도를 좀 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리고, 혹시 그동안 살아오면서 서로 오해하고 마음의 벽이나 상처를 갖고 살았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 대림 기간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월이 무지 빠르고 올해도 얼마 안 남았고, 내년도 세월 무지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 이러다 보면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가 버릴텐데, 용서할 수 없는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다가 그 한을 그대로 안고 죽으면 아쉽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늘 살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경쟁 관계에 있던 장사꾼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가게는 서로 마주 보고 있었어요. 이들은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 밤에 잠들 때까지, 아니 밤에 잠도 안자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망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 보다 내가 더 잘 살까’ 하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보다 보다 못해서, 어느날 하느님께서 천사를 한쪽 상인에게 보내십니다.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천사는 이런 제한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큰 선물을 내릴 것입니다. 그대가 돈을 원하면 돈을, 건강을 원하면 건강을, 그리고 자녀를 원하면 자녀를 줄 것이오. 단, 조건이 하나 있소.” 천사는 잠시 후 말을 이어갑니다. “그대가 무엇을 원하든 당신 경쟁자는 그 두 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돈 10,000불을 원하면, 그 사람은 20,000불을 얻게 될 것이오. 그러니 이제는 화해하고 함께 잘 살도록 하시오. 하느님은 이런 방법으로 당신들을 화해시키려는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그 상인은 한참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든지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저 사람은 그 두배를 받고요?” 천사가 그렇다고 하자 한참을 생각하더니, 그 상인은 크게 한숨을 쉬고는 결심한 듯 말합니다. “그럼, 제 한 쪽 눈을 멀게 해 주세요.” (‘상처와 용서’ 중에서, 송봉모 지음)

서로 축복해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잘 살기보다는, 함께 망하길 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를 하고 서로 화해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도 하느님은 서로 화해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용서가 안되는 것은 서로 잘 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악한 줄 모르고 남 욕하고, 내가 추한 줄 모르고 남 비난합니다. 그리고 내가 치졸한 줄 모르고 남 비웃습니다. 남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사람, 결국 알고 보면, 별 차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가장 큰일이 바로 용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시잖아요. “저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우리도 그러면 됩니다. “저 형제자매가 지금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와 화해... 인생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싫은 사람,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속 끓지 마시고 말입니다.

이 대림 기간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일 년 중 가장 감동적인 시기입니다. 온 세상이 그 감동을 함께 나눕니다. 해야 할 일도 많고, 챙겨야 할 것도 많은 바쁜 시기이지만, 잠시 하는 일을 멈추시고 대림절의 참된 의미를 마음에 한번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대림과 성탄은 우리 모두에게 치유의 시간, 은총의 시간입니다.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가장 소중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교회 전례와 독서를 통해서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우리 인생의 소중한 만남의 이야기, 그리고 사랑 이야기, 화해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성탄은 단순히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의 예수님 탄생을 경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삶 한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맞이하는 일입니다. 너무 바쁘게만 지내다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모른 채 그냥 지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깨어 있어라”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보내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래서 기쁨과 행복을 함께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잠들어 있다 보면, 기쁨도 행복도 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나십시오. 하느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깨어나십시오. 우리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깨어 나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내려질 은총과 축복을 하나도 놓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구세주가 오십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 가운데로 오시는 중이고, 그리고 그분은 항상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